

4년만에 한국찾은 로버트 김

가족들과 고향 여수 방문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는 처지가 한없이 슬펐습니다.”

로버트 김(김재곤·72)이 지난 2008년 이후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최근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한국을 찾은 그는 지난 3월 45년 만에 5남매와 재회했다. 고향 여수를 찾아 가족들과 함께 여수세계박람회도 관람했다.

“깨끗한 전시관과 기업관들을 보면서 ‘우리 기술이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관에 둘러 펴진 강강술래 메아리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그는 지난 1996년 미국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간첩죄로 기소돼 9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조국에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대기였다. 출소 뒤 가택연금상태로 지내던 2004년 3월과 6월,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김

상영씨와 어머니 황태남씨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당연히 참석하지 못했다.

“아버지은 늘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위해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를 끌고 믿고 따르셨던 어머니는 ‘네가 못 오니 내가 가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다음날 뇌출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불효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집은 회한의 목소리로 지난날을 떠올린 김씨에게 과거는 아직도 편치 않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앞이 깁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한 일이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체포 당시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던 정부의 태도에 참 서글펐어요. 그 때 부모님과 형제들이 가장 큰 힘이 됐었습니다.”

로버트 김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 오랜 수감

생활과 마음고생 뒷애 고혈압을 앓았고, 최근 체장암이 의심된다는 진단마저 받았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은 건강한 젊은이 못지 않다.

“출소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Robertkim.or.kr’에 7년간 336회에 걸쳐 글을 올렸어요. 살아있는 동안 진실 어린 나의 이야기가 국민에게 잘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로버트 김의 넷째 동생은 최근 4선 고지에 오른 김성곤 국회의원이다. 그가 수감됐을 때 초선 이던 김 의원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미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오는 24일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

“어디에서든 늘 대한민국 국민이란 자부심을 잊지 않을 겁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동신대 식품학과 노희경 교수팀
전남 어린이급식 관리사업 선정



동신대 식품영양학과 노희경 교수팀은 최근 전남도가 주진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돼 도내 영유아들의 영양 관리에 나선다.

동신대 산학협력관에 들어설 전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희경)는 이달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전남도로부터 총 10억여원의 지원을 받아 영양사 등 전문 인력 8명을 투입, 50인 이상 100인 미만 보육시설 100곳에 대해 철저한 영양 및 위생 관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김정운 광주 북구 부구청장
자녀 결혼축의금 장학회 기탁



광주시 북구 간부 공무원들이 잇따라 자녀의 결혼 축의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6월의 주인공은 김정운(57) 부구청장. 지난 2일 이들의 결혼식장에서 색소폰을 연주를 해 진한 감동을 연출했던 김 부구청장은 축의금 중 300만원을 지역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5일(재)광주북구장학회에 기탁했다.

광주시 북구에서는 매년 공무원이 경조사를 치르고 100만~3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자녀 결혼식을 치른 김희진(57) 자치행정국장 등 최근 1년간 북구청 직원들의 기부가 30여건에 4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광주북구장학회는 2007년 10월에 설립돼, 독자적 기업체의 기탁금, 주민들의 소액기탁 등으로 5년째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크리스마스 기적’ 김문홍 서해해경 과장 강연 ‘재능기부’

지난 2010년 12월 26일 신안군 흙산면 만재도 해상에 뒤집힌 화물선과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진 교사 등 15명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크리스마스 기적’이라 불리며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해양경찰관이 이번에는 마이크를 잡았다.

특강에 나선 그의 목소리는 힘이 실렸고 신바람이 났다. “해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능기부’에 나선 김문홍(54·총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이야기다. 그는 요즘 ‘인기 강사’다. 회사 신입 팀리더, 대학, 사회복지관 등에서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고 있다. 특강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인기 강사로 뽑고 있지만, 강사료는 대부분 받지 않는다.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이다.

그의 특강 주제는 주로 ‘리더십’이다.

5일 목포 이랜드 복지관에서 ‘원칙과 현장 중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 특강을 했다. 최근 폭력적이고 조직화된 불법 중국어선 실태와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해양경찰의 노력



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꺼냈다.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해양경찰의 역할 등을 알리기 위해 서다.

김 총경은 이날 15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26년 간 대한민국 바다

를 지켜온 살아 있는 경험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잘 버려 특유의 구수한 언변으로 특강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특강 중간마다 큰 박수를 보냈다.

폭풍우 속 5분만 늦었더니도 15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을뻔한 목숨을 건 만도 해상의 인명 구조 이야기는 큰 감동을줬다. 평소 실전 같은 대응 훈련과 김 총경의 기민한 상황판단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비정 안전도 장담하지 못할 악천후 속에

서 목숨을 걸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현장’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직원들에게 뜻이 박힐 정도로 얘기한다. “현재 리더십 부재는 현장을 중시하지 않고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경이 재능기부를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승진해 서해해경에 부임한 이후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 포스코 교육센터에서 신입 팀리더 특강을 시작으로 목포해양대, 복지재단 등에서 특강을 했다. 조만간 광주, 진도 등지에서도 특강을 할 예정이다.

김 총경은 국제해사기구(IMO)가 5m 높이의 폭풍 속에서 15명 전원을 10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한 공을 인정해 ‘바다의 의인(義人)상’을 줬다. 그는 2006년 한해에만 불법 중국 어선 110척을 나포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12일 개관 5주년 기념행사



진전이 열리고, 시민들이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들도 비디오아트로 제작돼 선보인다. 개관 5주년을 축하하는 대글을 시청자미디어센터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idiagi)에 남기면 누구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선호 센터장은 “시청자들이 미디어문화의 생산 및 향유자로 자리매김한 것이 그동안 일궈낸 가장 큰 성과”라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스마트 미디어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박지성 흰 우유 흥보대사 위촉



축구스타 박지성(31·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흰 우유 흥보대사로 활약한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는 7일 낮 1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박지성을 우유 흥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 측은 산소탱크 이미지를 자랑하는 박지성이 우유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할 적임자라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는 낙농가들이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운 단체다.

/연합뉴스

NH농협은행 영암군지부(지부장 전갑석)는 최근 나눔경영 실천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영암군에 쌀 200포(10kg)를 전달했다. <영암군 제공>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겸도강습회



광주여대(총장 주자문)는 최근 대학 천연진디구장에서 경찰법학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시경도협회 주관으로 겸도강습회를 가졌다.

<광주여대 제공>

동구 호남동 23-2번지·광주천변 건너편 062-510-6775.

▲광주생명의전화 시민상담 대학교육(8기)=상담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 자녀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신분, 배우자 및 대인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원하시는 분, 상담과 불사에 열정적이신 누구나 가능 12일(화) 오후 7시~9시까지(2시간) 광주생명의전화교육장 062-232-9192.

▲무료 알코올상담=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광주요한알코올상담센터 062-526-3370, 510-3370.

▲광주김치박물관·광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지침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자격증 과정, 문화체험, 여가스포츠)지원사업=지적·자폐성 장애인 60명 대상. 12월까지 062-524-7701~3.

▲전의경회(경우회 특별회)=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회 창립 019-277-5584.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277-5586.

▲제15기 한국문화학교 수강생=

판소리·민요교실·전통고전무용·풍수지리·생활역학·사진·제작교실·명심보감·관상학·침·뜸윤용·부보교육·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 12개 과목을 개설. 광주시 북구 중흥동 북구원 장례식장 4층 062-527-7701.

씨 부친상=발인 7일(목) 천지장례식장 202분향소 062-527-1000.

▲윤석현씨 별세 신월·현웅·소원씨 부친상=발인 7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학우씨 별세 민욱·진희씨 부친상=발인 6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주도순씨 별세 이신철·신자·미자씨 모친상=발인 6일(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弔

故정소영 님(여/43세)	故정옥순 님(여/72세)
夫 : 정용득 母 : 강복순	子/子婦 : 김경철 / 이은실·경수 / 김정희
兄弟 : 정은주, 디온, 성진	女/婿 : 김경희 / 조명수, 경진 / 김주영
• 별세1호	• 발인: 6월7일 • 연락처: 227-4381
• 장지: 경상남도	• 장지: 경상남도 • 장지: 영광군
故나정호 님(남/69세)	故박경옥 님(여/71세)
未亡人 : 배 순자	子/子婦 : 김경희 / 이주희 경규 / 박금숙
子 : 나 현우	• 호실401호 • 발인: 6월7일 • 연락처: 227-4383
女/婿 : 나지은 / 한충운, 지해 / 유승갑	• 호실102호 • 장지: 영광군원 • 연락처: 227-4386
• 호실401호	
• 장지: 화순동면	

마을 까지 편 암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